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⑥

선근발상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念處 正勤 如意 根力 覺道 空 無相 無作 六度 諸波羅密 神通 變化等 一切法 門發相 是中應廣分別 故經云 制心一處 無事不辨

염처(念處)로부터 각도(覺道)까지는 칠과도품(七果道品)의 모습이다. 이는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의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이며, 공(空) 무상(無常) 무작(無作) 등 삼해탈문(三解脱門)이다. 따라서 육도(六度)와 신통변화 등의 일체법문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육도는 육바라밀인데, 범어로 바라밀은 생사차안을 떠나 번뇌중류를 건너서 열반과인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신통변화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체방편의 법문 편에서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체법문이 개발되는 모습은 자세히 분별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그 명칭만 표시했을 뿐이다.

경전에서는 "우주만법은 한량없이 많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주인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망상으로 요동하지 못하게 다스리는 저소에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였다.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불법은 허다한 일이 없고 단지 경전에서 말하는 이 두 구절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있다는 점이다.

옛 큰 스님이 말하기를 "세간에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으나 단지 분별심이 있는 사람이 두려울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도 역시 이 같은 뜻일 것이다.

二分別眞僞者有二 一者辨邪禪發相 行者若發如上諸禪時 隨因所發之法 或身搖動 或時身重 如物鎮壓 或時身輕欲飛 或時如縛 或時透透垂熱 或時煎寒 或時壯熱 或見種種諸異境界 或時其心闇蔽 或時起諸惡覺 或時念外散辭諸雜善事 或時歡喜躁動 或時憂愁悲思 或時惡觸 身毛驚豎 或時大樂昏醉 如是種種邪法與禪俱發 名爲邪僞

두 번째는 수행 중에 일어나는 선근발

상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이 진위를 밝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선근이 일어나는 모습이 사되고 거짓인지 분별해야만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했던 삼매에서 일어나는 때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을 따라서 몸이 어지럽게 요동치기도 하고, 마치 어떤 물결이 짙 누른 것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날고 싶을 만큼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에게 속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몸이 축 늘어져서 잠이 오기도 한다.

혹은 몸을 지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몸이 불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갖가지 특이한 경계를 보기도 하고, 마음이 껌껌하게 덮여 막힌

올바른지 사된 것인지 등 분간하지 못한다면 물고기 눈과 진주 혼동하는 잘못 범할수있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모든 악한 분별심을 일으키기도 하며, 잡다한 선한 일을 밖으로 산란하게 치구하여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기뻐 들떠서 어쩔 줄 모르기도 하며, 근심과 걱정이 짙 차서 슬픈 생각을 하기도 하며, 악한 촉각 때문에 모골이 송연해지기도 하며, 마치 술에 취해서 미친 기운이 도는 것처럼 지나치게 즐겁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사된 법이 선정삼매와 함께 일어나면 그것을 사되고 거짓된 선근발상이라고 한다.

삼매 속에서 선근이 발동할 때 그것이 올바른지 사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물고기 눈과 진주를 혼동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되고 거짓

된 삼매의 모습을 논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삼매에서 일어나는 선근의 모습을 논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되고 거짓된 삼매에서 발현한 모습은 수행자가 지관을 닦는 가운데 발현했던 모습을 따라서 몸을 짙 누르는 것처럼 무거운 모습이 발현되기도 하고, 몸이 축 늘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두운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몸이 가볍고 무겁고 잠이 오고 뜨겁고 차갑고 하는 등의 갖가지 특이한 경계는 모두 다 사되고 거짓된 모습이 진정한 삼매에서 발현한 선근의 모습은 아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껌껌한 것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악한 분별심을 일으키

기도 하고, 사된 생각으로 사유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들뜬 마음으로 환희하기도 하며, 더러는 근심에 잠기기도 하는 등의 갖가지 사된 법이 선정삼매와 동시에 일어나면 그것을 모두 사견이라고 말한다.

수행인이 이와 같은 갖가지 경계를 피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관수행을 열심히 할 때에 진실한 마음과 망상이 교차하며 내적인 마구니와 외적인 마구니가 무더기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식별해야만 한다.

此之邪定 若人愛著 即與九十五種鬼神法相應 多好失心顛狂 或時諸鬼神等 知人念著其法 即加勢力 令發諸邪定 邪智 辯才 神通 感動世人 凡愚見者 謂得道果 皆悉信伏 而其內心顛倒 專行鬼法 惑亂世間 是人命終 永不值佛 還墮鬼神道中 若坐時多行惡法 即墮地獄 行者修

止觀時 若證如是等禪 有此諸邪僞相 當即却之 云何却之 若知虛誑 正心不受不著 即當謝滅 應用正觀破之 即當滅矣

이와 같은 사된 선정은 한 생각이라도 좋은 경계로 알고 애착을 갖는다면 바로 인도 구심오중 의도의 귀신법과 서로 일치하게 되어 사람마다 진심을 잃고 전도망상에 빠지게 된다.

모든 귀신들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된 법에 집착하는 것을 알면 즉시 세력을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애착을 갖게 한다. 따라서 모든 번뇌와 사된 선정, 사된 지혜, 사된 번째, 사된 신통 등의 경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갖가지 사된 경계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하여 모두가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그를 따라서 행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미혹하고 타인까지 현혹하게 하는 것이다.

내적인 마음은 망상으로 전도되어 오로지 의도의 귀신법만 행하게 하는데, 이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신의 세력으로 떨어지게 된다.

만약 이 사람이 남은 복이 있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악한 짓을 많이 하여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구심오중 의도의 경전을 연구하면 된다. 수행자가 지관정진을 닦을 때 이와 같은 사된 거짓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리쳐야만 될 것인가. 이 모든 모습이 거짓임을 알아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면 바로 사라져 버린다.

만일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관법을 수행해서 타파해야만 한다. 그러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1) 인연생기의 순차적 고찰(生滅流轉觀)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상호관계성에 대해서 '연기성도경(緣起成道經)'과 '유식술기'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무명연행(無明緣行) 진여의 이치가 있어서 올바른 정지견(正知見)이 없고 어리석어 감각해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무명이 의지처가 되어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발동합니다.

② 행연식(行緣識) 신구의 삼업, 즉 생이 다시 의지처가 되어 무명업식인 제팔아뢰아식 가운데서 제법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종자를 발동시켜 활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기에서 제법이라 하는 것은 '오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③ 식연명색(識緣名色) 제팔아뢰아식이 그곳에 합장된 신구의 삼업의 종자로부터 활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시 색심제온(色心諸蘊), 즉 오온이 생깁니다. '명'은 수상행식 사온입니다. 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그 명칭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이라고 합니다.

④ 명색연육입(名色緣六入) 명색을 의지하기 때문에 육근(六根), 즉 안근(眼根)으로부터 의근(意根)에 이르러까지 내육처(內六處)가따르따로 서로의 간격을 달리하면서 일어납니다.

⑤ 육입연촉(六入緣觸) 육입(六入)이 의지처가 되어 인식 대상인 외육처(外六處), 즉 육경(六境)을 상대적으로 집취하여 그 중간에서 육식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때 외육처인 육경도 내육근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일어납니다.

⑥ 촉연수(觸緣受) 촉이라는 감각작용을 의지하여 삼수(三受), 즉 고타사(苦樂捨)를 일으킵니다. 즉 촉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이 자기의 감정에 순종하는 경계이면 즉시 탐애의 감정을 일으키고, 거역하는 경계이면 즉시 증오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수(受)는 대상경계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⑦ 수연애(受緣愛) 대상의 경계를 감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즉시 그 대상에 대해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즐거운 경계에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괴로움의 경계에서도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괴로운 경계를 피하려 하는 것은 괴로움을 떠나서 안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따라서 괴로움과 즐거움, 그 어떤 경계에서도 욕망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불자 정보

704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 동구 가양동 주택가 오지
- 평수 : 단독 1층건물 27평
- 작은마당있음
- 아미타,관세음,지장보살,후불탱등 고급신조성시설
- 가액 : 보증금 1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600만원

042)623-3309
011-457-3344

포교원 안내

- 부산 사상구 덕포지하철역 바로, 버스정류장 바로, 교통 최요지
- 평수 : 25평
- 법당, 삼존불, 탱화 일절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가격절충
- 법사, 스님에게 적합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4557-218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원평1동 1027-14번지
- 3층건물 만지하까지
- 1층 요사채, 2층법당,3층법당
- 총평수 : 약 60평, 대지68평
- 가액 : 1억7천만원 (용자승계 : 1억 2천만원)

054)571-6973
011-547-6973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청량산 맞은편 고찰터 위치 (주변 온천및 공원개발중)
- 평수 : 약20평
- 건물만 매매함(등기유)
- 가액 : 1천7백만원
- 시설비:상당후 결정

010-2535-3413

탈종공고

- 사찰명 : 천상암
- 주 지 : 반야화(이영순)
- 주 소 : 서울 중랑구 면목7동 653-29

포교당(금)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밑집지역)
- 4층건물중 2층(80평)
- 법당(40평), 요사채(40평)
- 시설완벽하여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가능함

053)629-4916
011-9374-1399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만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용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140평, 뒷밭28평, 법당25평
- 요사채 30평, 창고 큰거, 작은거 2개
- 요사채 방4개, 스님 방 따로 1개
- 건물 90평정도, 화장실 겸 샤워실 2개
- 법당, 마당에 주차가능
- 부엌 겸 큰거실, 바깥 큰부엌 2개
- 가액 : 1억6천만원(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부탁
- 주지스님 건강상 급안내

010-9466-1191

포교원 안내

- 대구시 달서구죽전동4거리 (죽전지하철역 2분거리)
- 평수 : 약 42평(2층)
- 구조 : 법당 약20평 (삼존불 모셔있음) 방2개, 주방겸 거실, 단독 남,녀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에 월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포교당(금)안내

- 대구시내에서 포교당하실분, 대로변
- 보증금 700만원 월 45만원
- 재래시장내
- 1500만원, 비품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5886-3088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5일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매도 및 전세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33평
- 법당 20평(목조)
- 전세 1억7천만원
- 매매 상담후 절충

010-4741-3446

포교원 안내

- 위치 : 관악산 낙성대입구 도로 5분거리
- 5층건물중 3층 약40평
- 법당, 방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000만원 월85만원
-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능)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9940-9779

전세금으로(포교원건물인수)

- 위치 : 전주시 전주역 부근
- 규모:대지110평 건평약150평 2층 2동 1층 상가2층 (법당약45평 시설비약3000만원)
- 2차선도로 코너건물
- 합7세대(인대 수익금 월120만원)
- 용도 : 포교원(사회복지시설적합)
- 가액 : 1억 5천 4백만원

010-9046-7006

포교당(금)안내

- 위치 : 부천시 5분거리 대형재래시장입구
- 구조 : 5층건물 2,3층 각30평
- 시설완벽,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최저, 답사후 결정

010-7742-015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 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